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출발선 아나

보도시점 2025. 3. 12.(수) 11:00 < 3. 13.(목) 조간 > 배포 2025. 3. 12.(수)

한-몽골 희소금속 전주기 협력 강화

- 제2차 한-몽 희소금속 협력위원회 개최 -
- 양국 희소금속 탐사·개발·R&D 협력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기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3월 12일(수), 서울에서 제2차 한-몽골 희소금속 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를 개최하여 양국 간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동 협력위는 「한-몽골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체결(한-몽 총리 회담 계기, '23.2월) 후속 조치로 개최되었으며, 한국측에서는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유관기관(지질자원연구원·광해광업공단·에너지기술평가원·산업기술진흥원·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석하였으며, 몽골측에서는 산업광물자원부 자브흘란바타르(S.Javkhlanbaatar) 사무차관을 비롯해 지질조사소, 지질연구소 등이 참석하여 양국간 다양한 희소금속 협력방안들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대표적인 희소금속 협력사업 중 하나인 한-몽 희소금속 센터(ODA)는 올해 11월까지 장비·기자재 구축을 완료하여, 향후 우리기업들의 몽골 광물개발 진출 전초기지로서 희소금속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애로기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 지질탐사전문기관(KIGAM-GCRA)간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공동탐사를 수행하여 몽골 내 희소금속 부존 정보를 파악하고 우리기업 탐사기술 실증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주석광 개발기술 실증사업(R&D)을 추진하여 몽골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마이닝 기술 적용 및 파일럿 플랜트 선광기술 확보 등을 통해 몽골 주석광 개발 활성화 및 우리나라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다.

몽골은 몰리브덴(생산량 세계 8위), 주석, 희토류 등 다양한 희소금속이 매장되어 있으며 희소금속 개발 잠재력이 높으나 미탐사 지역이 대부분으로 현재 구체적인 부존 정보가 부족하고 운송 등 인프라가 미흡해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양국은 경제성 확보가 유망한 희소금속 위주로 탐사부터 개발까지의 전주기 협력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공급망 안정화 및 몽골 광물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	책임자	팀 장	윤용석(044-203-5259)
		담당자	사무관	김지훈(044-203-525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